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6주일(성모 성월)
제30권 24호(다해) 2010 · 5 · 9

[묵상]



성령

이남규,
1989년, 유려화,
지름 1340cm,
도봉동성당, 서울

떠나시기 전
저희가 걱정스러운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실
보호자를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저희들이 잊을까봐,
혹은 다르게 왜곡할까봐
제대로 기억하게 해주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떠나가시면
세상의 달콤한 손짓과 온갖 위협에
마음이 산란해지고 겁이 나겠지만
그런 저희들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남겨두고 가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따르기에 당신과 함께 사는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

당신께서는 사랑과 평화로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보호자를 통해 지켜주시겠습니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매론 청년회 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레 (작수달 4번째 토요일) 매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만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첫째/셋째주 - 대학부 (PACEM)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생)정해홍 요셉, 성낙호 요셉 & 은혜 실비아
주 일 낮 미사	(연)이금순 마리아, 박준구 요한, 이현호 요한, 장현숙 발바라, 김종환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이민찬, 소수연 안나, 엄은섭 도로테오
	(생)이재용 안드레아 & 해선 안젤라 가정, 오세원 아타나시오 & 해숙 루시아 가정, 오 레이몬드 & 오 스티븐, 박진숙 로사, 권영옥 루치아, 변해경 올리아나, 홍주희 안나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cts of the Apostles) 15,1-2.22-29

화답송 ○창생이 하느님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전례성가 73, 부활 제6주일 다해>
○하느님, 우리를 어여삐 여기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옵소서. 어지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당신의 도가 세상에 알려지고,
만백성 당신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정의로 못백성을 다르심을, 이 세상 못백성을
다스리심을. 창생들이 기뻐하라,
춤추며 기뻐하라.○
○하느님, 당신을 높여 창생이 기리게 하소서.
만민이 당신을 높여 기리게 하소서.
하느님,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천하 만방이 당신을 두려게 하소서.○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21,10-14.22-2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복음 요한(John) 14,23-29<또는 17,20-26>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324	170
봉헌	368	256,264
성체	아버지	280,308
파견	Blessed Be Your Name	324

2.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 생명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메시지 -

▶하느님의 영광이 인간의 얼굴에서 빛난다

성서 저자는 세상에 대한 지배만을 이러한 형상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보지 않고, 이성, 선악의 구별 능력, 자유 의지들처럼 인간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들도 그 형상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풍성하게 주시고 선과 악을 분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집회 17,7) 인간은 그를 창조하신 분, 참되고 올바른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신명 32,4 참조), 진리와 자유에 도달하는 능력은 인간의 특권이다.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창조주를 알아 사랑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생명은 단순히 시간 속에 실존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것이다. 그것은 충만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이며,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실존의 씨앗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불멸한 것으로 만드셨고 당신의 본성을 본떠서 인간을 만드셨다." (지혜 2,23)

35). 야훼께 전승의 창조 이야기도 같은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이 오래된 설화는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느님의 숨결에 대해서 말한다. "주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 (창세 2,7)

이 생명의 영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지상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만드셨고, 그 안에 지워지지 않는 하느님의 표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느님께로 이끌리는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의 갈망에 귀를 기울일 때, 모든 사람들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표현한 다음과 같은 진리의 말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희를 당신을 위해 내셨기에 저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늘 불안하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라고는 식물과 동물 세계밖에 없던 에덴에서 살던 인간의 삶에서, 그의 삶을 열룩지게 했던 불만족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창세 2,20 참조) 오직, 남자의 뼈에서 나온 뼈요, 살에서 나온 살이며(창세 2,23 참조), 그 안에 역시 창조주 하느님의 영이 살아 계신 여자가 나타남으로써, 인간 실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격간의 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타인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며 완성인 하느님의 모상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기억해 주시다니! 사람이 무엇이옵니까? 당신께서 이토록 돌보아 주시다니!" (시편 8,5)

(◆계속)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밟으며 ...

기쁨과 슬픔이 씨줄과 날줄로 만나는 곳, 희망과 번뇌가 산소와 수소처럼 결합되어 있는 곳, 그곳은 우리 자신이며 동시에 세상입니다. 그래서 슬픔에서 기쁨을 기다리는 인내와 용기가, 희망에서 번뇌를 준비하는 지혜와 겸손이 값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를 묵상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축제의 들뜬 분위기나 잡히시기 전의 불안하고 두려운 분위기는 읽을 수 없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담담합니다. 아버지께 가실 때가 왔음을 아신 예수님이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편에서 그때가 임박하자 제자들이 산란해질까 봐, 겁을 낼까 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며 다독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일”이 닥치자 제자들은 실제로 산란해졌고, 겁을 내며 달아났으며, 무서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지내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께 가신” “그 일”이 제자들에게는 그저 끔찍한 ‘십자가 처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이제 하느님 아버지와 세상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스승 예수님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물론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와 “모세의 관습” 같은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하려는 구원, 곧 세상이 주는 평화가 혼재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평화가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평화를 가리거나 우리를 미혹(迷惑)하기까지 합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불의와 위세를 떨칠 때도 있고, 착각하고 속을 만큼 거짓 평화가 그럴듯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겪으며 인내하면서도(묵시 1,9 참조)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믿고 희망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만으로 ‘화려한 도성 예루살렘’을 쌓으려니 불안과 부조리와 불의에 시달리며 고통과 슬픔과 번뇌의 늪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우외환의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결정하였습니다.” 성령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서 새 하늘을 바라보고, 새 땅을 밟는 길입니다.

안팎의 내 처지(處地)와 주변(周邊)과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봅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용기를 내어 한 걸음만 옮깁시다.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깊은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아멘.

◆박동호 안드레아 신부/
서울 대교구 신수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데레사	신중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이상용 엘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남성철 베네딕도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팅	황지영 안젤라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5 월
성모성월

오늘 주일은 어머니날입니다.
Happy Mother's Day!
성모님을 신앙의 어머니로 모신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친의 어머니께 사랑
으로 공경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 ◆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연례총회에 본당 신부님 참석
 - 일정 : 5월10일(월)~14일(금)
 - 장소 : 패사디나 예수고난 수도회 피정집
 - 이 주간 평일미사(수,목,금) 없습니다. 신부님들께서 은혜로
운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 제7회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5월16일(주일), 낮미사 후 운동장
 - 당일 미사 시간 임시 변경
 - * 아침미사 : 7시30분, 학생미사 : 없음, 낮미사 : 오전 10시
 - 주최 : 사목회 ● 주관 : 대교회
 - 구역별 팀구성 :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 토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주일학교/한국학교 : 청팀(작수학년, 초록 티셔츠)
백팀(홀수학년, 흰색 티셔츠)
 - 식사 : 각 구역별로 준비(안나/요셉회는 해당 구역에서 준비,
매론청년회는 백팀이 준비)
 - 종목 : 피구, 오체미던지기, 어린이축구, 릴레이, 줄다리기 외-
 - 기념품 증정과 다양한 일상생활용품들 상품으로 드립니다.
 -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신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문의 : 이크리스토퍼(796-6960), 김요한(740-1501)
김스테파노(926-2248), 현아오스딩(594-9472)
- ◆ 백삼위 영어권 청년회 창립
 - 첫모임 : 5월23일(주일) 오전 11시30분 백삼위 잔디구장

- 행사 : 여성들도 할수 있고 보람되고 재미있는 자선 운동경기
점심무료제공, 복음나눔기및 친교행사
- 연락처 : 청소년 분과 최애우세비오 jin7choi@yahoo.com
☎(310)738-0230
- ◆ 안나/요셉회 봄철 온천 관광
 - 일시/장소 : 5월25일(화)레이크엘시노, 오전 7시30분 출발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장 ☎(310)518-1736
김금자 테레사 총무 ☎(310)539-9526
- ◆ 예비자 모집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주변의
이웃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전신자들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예정 : 예수님 성탄절)
 - 환영식 : 6월20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6월24일(목)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장소 : 2층 교리실
- ◆ 백삼위 서예반 개강
 - 일시 : 매주 주일 오후 1시30분~4시, 2층 유아실
 - 회비 : \$40 * 강사 : 박태홍(한국예총 미국 서예가협 회장)
- ◆ 대학부(PACEM) 성전 헌금 도네이션
지난 주일 대학부(회장 김낙기 바오로)가 기금마련 친교자리
음식판매에서 남은 이익금 중 \$100을 본당 성전헌금으로 도네
이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판매중입니다!
 - 한글-영어 합본 상장애식서 : \$15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사무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눔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5월9일(어머니날 주일) : 소공동체(김밥/떡 \$4)
 - 5월16일(한마당 체육대회 : 각구역별로 점심 준비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천용	김교복	김기석	김낙기	김병조	김선재
	김성현	김양금	김옥찬	김용상	김원모	김 은
	김재영	김정순	김정희	김충섭	김택수	노찬술
	류태우	민기남	민찬기	박근식	박씨니	박인식
	박정자	박정희	방정복	송기철	신정훈	양영관
	오일순	오 진	우영희	유영균	유은영	유희연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연행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인두	이인석	익 명	장영우
	장영진	정상문	정정현	정지숙	정해홍	주대중
	차병용	최길주	최의수	최태훈	최희숙	황학수
	영희가보라					합계 : \$6,915
미사헌금 : \$2,712.75	2차헌금 : \$1,069					

성전헌금	고천용	김교복	김기석	김낙기	김병조	김선재
	김양금	김용상	김원모	김재영	김정희	김충섭
	김택수	노찬술	류태우	민기남	민찬기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신정훈	양영관	유영균
	유은영	유희연	이귀분	이근모	이근태	이명자
	이영숙	이영희	이은록	이인석	익 명	장영우
	정상문	정정현	정지숙	정해홍	주대중	차병용
	최길주	최의수	최태훈	영희가보라		
						합계 : \$4,595

공지사항

◆ 주일학교/한국학교 휴강 안내

- 일시 : 5월16일(한마당체육대회), 5월30일(메모리얼데이 연휴) 두 주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 * 학생미사(오전 9시30분)는 있습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9~12학년 * 기간 : 7월23일(금)~25일(주일)
- 신청 : \$185(5월30일까지), \$195(5월30일 마감이후)
- 참고 웹사이트 :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 주일학교 *문의 :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 St. Margaret Mary (25511 Eshelman Av. Lomita)
- 견진성사자와 대부모는 위 3일일정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6월6일(주일) 오전 11시 미사중
- 첫 고해성사/세례 및 리허설 : 6월5일(토) 오후 3시45분
- 대상 : 주일학교 2학년~6학년, 첫영성체 받지 않은 어린이
- 신청서: 편지로 우송됨(☎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주일학교 Summer Camp

- 일시 : 6월25일(금)~27일(일) 금요일 오후2시 성당 출발
- 장소 : Cachuma Lake (Santa Barbara)
- 대상 : 3-12학년 * 내용 :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
- 주거:단체 텐트
- 참가비 : \$60
- 마감일: 6월6일 * 참가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남가주 소식

◆ 제9회 남가주 M.E.천선골프대회

- 일시 : 5월18일(화) 오후 1시 티오프(등록 낮12시)
- 장소 : Moorpark Country Club ☎(803)532-2834
11800 Championship Dr. Moorpark, CA 93021
- 회비 : \$100(중식 및 석식제공)
- 시상 : 메달리스트, 장타상, 근접상, 홀인원, 부부상 등 다양
- 문의 : 이남현 박시모 ☎(213) 272-3598

이번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행사의 날, 빈첸시오 모임	
----------------	--

5월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씨니 클라라	(310)612-8840
차 장		박희자 마리아	(310)325-6982
차 장		이경수 헬레나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신덕례 데레사 494-1390	신덕례 데레사 494-1390 5/20(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장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크리스 야카토 619-776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이정아 리디아 213-200-9432 5/14(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1/2	박해경 레나타 808-5005	5/16(주일) 본당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제양식 콜레&에스테(323)829-5313 5/14(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자 544-4807	오석만 사무엘 750-6007 5/14(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5/14(금)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영희가보라 544-1009 5/11(화) 오전 10시30분

성모 성월을 맞는 신앙인의 자세

5월 성모성월이 시작됐다.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시절인 5월을 성모성월로 지내면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마리아의 모범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풍요로운 전통이다.

그래서 교황 바오로 6세는 지난 1965년에 발표한 '성모성월'에 관한 교서에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성모성월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모성월을 맞아 성모성월의 유래와 의미 올바른 성모신심, 성모신심의 종류 등에 대해 알아본다.

▶성모성월의 유래와 의미

5월과 성모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카스티야(스페인의 중부의 옛 왕국)의 왕 알폰소 10세(1221~1284). 그는 5월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성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풍요로움을 연결 5월 한달간 특별히 마리아에 기도하자고 권고했다.

이 때부터 5월을 성모의 달로 기념하는 전통이 서방교회 내에 차츰 자리잡기 시작했다. 성모성월이 구체화된 것은 17세기 말. 1677년 피렌체 부근의 도미니코회 수련원에 성모를 특별히 공경하는 단체가 생겨 5월을 성모께 봉헌하는 축제를 마련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고 마리아에게 장미 화관을 봉헌하는 등 성모 신심을 고취시켰다.

이런 형식의 성모신심 행사는 그 뒤 전 유럽 교회로 퍼져나갔고 여러 신학자들이 '성모성월'이라는 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정착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특히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선포한 후 성모 신심은 절정에 달했으며 성모성월 행사는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성모성월을 제정한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 또 성모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하느님께 대한 순명과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일치체를 이루고 평생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라간 성모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뵈기를 염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의 삶을 두고 "하느님과 깊은 일치와 전 인류의 깊은 일치체를 표시하고 이루어주는 표지요 도구"(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교회헌장 1항)인 교회의 전형(典型)이 된다고 가르친다.

▶올바른 성모신심

그리스도교의 '신심'은 하느님이나 하느님과 관련된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둠으로써 하느님을 섬기고 경배하려는 인간의 경건한 태도와 자세를 의미한다. 성모 신심도 마찬가지다. 성모 신심은 일차적으로 마리아가 성자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구원신비에 특별하고 탁월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공경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지향해야 한다.

결국 성모신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의 중심에 두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생활의 전부로 삼아 갈아가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성모 신심은 성모가 합당한 공경을 받음으로써 "성자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며 성자의 계명이 준수되도록 하는 것"(교회헌장 66항)이다.

성모 신심의 대가인 성 루이 몽포르(1673~1716)는 △성모공경이 그리스도께 대한 공경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거나 △마을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심 없이 형식적인 신심 행위 자체에 빠져 하느님의 은총을 간구하고 △자신의 유익이나 재산을 피하기 위해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기도하는 행위 등이 잘못된 신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올바른 신심은 성모에게 완전하게 의지하는 자세 역경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항구한 신앙과 신뢰를 가질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성모 신심의 종류

교회는 전례력을 통해서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1월1일)을 비롯해 성모 마리아와 관련되는 여러 축일을 공적으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전례 안의 공적인 마리아 공경 외에도 다양한 신심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묵주 기도.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제정할 만큼 신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신심은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며 순명과 겸손의 삶을 산 성모를 공경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적의 메달과 스카폴라를 착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성모의 사랑과 보호를 믿으면서 성모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마리아가 겪은 7가지 고통을 묵상하는 묵주기도 있다.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한번과 성모송 7번을 번갈아 바치며 시메온이 예언한 고통(루카 2,34-35), 어집트 피난 성전에서 소년 예수를 잃음, 그리스도의 수난 예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예수 무덤에 묻히심 등을 겪은 성모의 슬픔을 묵상하는 것이다. <◆평화신문>